

# “변화 준비하는 한해 될 것”

##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신년 인터뷰

지난해 개산조 태허대종사 탄신 1백주년을 맞으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을 1월 21일 서울 모각사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스님은 “올해는 종단이 시대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포교 지침서 발간과 해외교류에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변화를 바라는 종단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종단 개산조 태허대종사 탄신 1백주년 기념행사는 종단적으로 뜻 깊은 일이었습니... 7천여 종도들이 장충체육관에 모인 한중일 고승초청 국제보살계 대법회가 원만하게 회향된 후, 종단 내에서 ‘새로운 종단발전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개혁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짙을 것은 짙고 개혁할 것은 개혁하겠습니다.

▲종도들에게 제시할 종단 발전 방안은 무엇입니까? -21세기 종단 발전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집안 단속부터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종단 소속사찰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연수교육이 상하반기 2차례 실시되며, 지방 사찰 포교활성화

을 고민해나가겠습니다. ▲해외 포교사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져온 신뢰를 바탕으로 국제 불교교류 활성화와 타종단, 이웃 종교와의 연대도 꾸준히 모색하겠습니다. 한일불교교류협의회를 통한 일본불교와의 교류, 러시아 카르마가 공화국 불교계와의 교류가 올해 본격화될 것입니다. 중국에는 장안사를 건립해



▲새해를 맞아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뿌린대로 거둔다는 인과와 윤회의 법칙은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물량주의 등 부정적인 모습이 팽배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경제인들이 책임을 져야하겠지만, 일차적으로는 종교인들이 책임감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인, 성직자들은 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윤택하게 하는데 기여를 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이 먼저 정치, 경제를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사회문제가 발생하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종교인들이 우선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강원우 기자 shanmok@buddhapia.com

## 포교지침서 발간·해외교류에 역량 결집 창종기념비 설립·태허대종사 유고문집 발간

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해 전국에 배포할 생각입니다. 신도회장 등 임원선출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신도회가 개편되는 대로 신도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생각입니다. 신도들에게 신앙 및 사찰 체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종단 인력이 어느 정도 정비되면 그 때부터 종단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

중국 포교인들이 신행생활을 할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중국에서 한국불교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단이 관심을 기울어겠습니다. 한·미안마교류협의회를 통해 미안마 양공에 기술교류를 금년에 세우고 싶습니다. 미안마 불자와 일반 청소년이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종단 차원의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웃종교와의 활동에도 보조를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 붓다선원 개원 법회

서울 붓다선원(주지 영탄) 개원 법회가 1월 16일 봉행됐다(사진). 용두 2동 충효빌딩 7층에 위치한 붓다선원은 홍제동 보병사가 이전

개원한 사찰로 이날 법회에는 미륵종 총무원장 송정 스님, 서울 휴휴암 주지 홍법 스님 등 2백 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한편 붓다선원은 최근 남양주 화도읍에 2500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사회복지 시설 건립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곳에는 1차로 노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 ‘부처님 마을’을 건립할 계획이다. (02)953-8780 강원우 기자

## 진각종도 스리랑카에 의료단 파견

진각종(총리원장 효암)이 지난해 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스리랑카 동남쪽 해안지역인 파나두라(Panadura)지역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한다.

2월 5일부터 10일까지 의료활동을 펼칠 진각종 의료봉사단은 열린 의사회와 함께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정형외과 등 관련 분야 전문의사와 자원봉사자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의료봉사단은 콜롬보 남쪽에 위치한 파나두라 인근지역의 난민수

용시설과 스리랑카JGO센터에서 대민 진료와 전염병 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진각복지재단 지원 사무처장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적게 입어 구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파나두라에서 의료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각종과 진각복지재단은 현재 스리랑카 이재민 피해복구를 위한 모금운동을 전국 각 심인당과 재단산하 단체별로 전개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 “선암사 관음불상은 진품”

### 검찰, 前 주지 지허 스님 무혐의 처리

선암사 원통전 관음불상이 가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임안식)은 1월 24일 순천 선암사 일부 승려들이 전 주지인 지허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원통전 목조관음불상좌상의 유출에 대한 진정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또 지허 스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묘각, 도월 스님들은 ‘선암사 주지였던 지허 스님이 원통전 목조관음보살좌상이 최근에 제작된 모조품으로 보인만큼 진위여부를 가려달

라’는 진정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접수한 바 있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순천시 문화재 담당 공무원, 승려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모조불상의 조성경위와 원불의 환봉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온 검찰은 ‘1995년 지허 스님이 원통전에 모조불상을 모신 사실이 있지만, 이는 원불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고 모조불을 모신 것에 대한 잡음이 일자 1996년 7월 보물장에 보관중인 원불을 환봉하면서 모조불을 외부로 반출했지만 1997년 6월 후임 주지의 요청으로

모조불이 반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 남아시아특기 알뜰장터 6일 천태종 관문사서

천태종 관문사주지 춘광는 남아시아를 강타한 지진해일 피해 국가를 돕기 위해 2월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알뜰장터를 연다. 이날 바자회는 먹거리 장터와 제수용품 마련 알뜰장터로 열리며, 수익금은 전액 지진해일 피해국가 돕기 성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에앞서 관문사는 1월 한 달 동안 매주 정기법회에서 성금을 모금했으며, 경내 1층에 모금함을 설치해 불자들의 정성을 모으고 있다. (02) 3460-5300 김원우 기자



태고종 제주총무원은 1월26일 제주시 화북2동에 건립한 치매노인요양시설 태고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 제주도에 치매노인 시설 개원

### 태고종, 기초생활수급자에 무료 서비스

태고종 제주총무원 태고복지재단(이사장 도산, 제주총무원장)이 1월 26일 치매노인 요양시설인 태고원(원장 정성환)을 개원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태고종 원로의원 설봉 스님, 총무원장 운산 스님, 종승 위원장 춘곡 스님, 제주불교 회장 종호 스님과 김태환 제주도 지사, 양우철 도의회의장, 김영훈 제주시장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날 개원법회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종단에서 1사찰 1선행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교구차원으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제주교구가 처음”이

라며 “제주불교 노인복지 사업이 한 걸음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 자원봉사자와 직원 등이 합심해 더 많은 관심과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 이사장 도산 스님은 개원사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불국정토 건설에 앞장서는 실천하는 종단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비 23억 8700만원을 투입해 제주시 화북2동에 건립된 태고원은 대지 1715평, 건평 532평 지상2층 지하1층 규모이다. 태고원에는 요양실 물리치료실 운동실 의무실 육실

식당 게이트볼장 운동실 자원봉사실 간호사실등을 갖추고 있다. 태고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치매 중풍 당뇨등 노인성 질환 환자들은 무료입소가 가능하다. 현재 13명의 노인들이 입주해 있으며, 정원은 총 60명이다. (064) 726-5225 김원우 기자

### 천태종 출가자 동안거 55일간...3월14일 해제

천태종총무원장 운택은 1월 19일 총본산 구인사에서 올유년 승려 동안거 결제에 들어갔다. 종정 도용 스님을 증명법주로 55일간 용맹정진에 들어간 천태종 스님들의 동안거는 3월 14일 해제한다. 한편 천태종은 2월9일부터 총본산 구인사 초점초행사를 갖는다. 김원우 기자

##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인모집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 (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 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제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시	수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유.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년 2회 합숙 수련)
전원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 한국 불교 통신대학 · 대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

출가 수행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계교육) 참조

직장에서 가정에 불교 교리 학습

## 나란다 삼장불학원 학인모집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연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인 마린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연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2005년 3월 10일 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원비
- 교 수 진: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김진결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 (사)한국불교금강선원 나란다 삼장 불학원

전화 (02)969-2410 / 969-4981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